



‘윤장혁 vs 전규석’ 12기 위원장 선거 맞대결

11월 29일~12월 1일 1차 투표 ...

일반 부위원장 후보 여덟 명, 비정규직·여성 임원 단독 등록

금속노조가 12기 임원선거를 본격 시작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울산지부장과 전규석 노조 8기 위원장이 새 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진우)는 11월 8일 14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두 개 후보 조와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여덟 명이 등록했다” 라고 밝혔다.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과 여성명부 부위원장은 각각 단독 입후보했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두 개 후보 조 경선

이번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에 기호 1번 윤장혁(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이찬우(기아차지부 소하지회)-엄교수(현대차지부 통합사업부) 후보 조는 중심구호로 ‘반격!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제시했다.

노조 11기 울산지부장인 윤장혁 위원장 후보는 2001~2005년 고강알루미늄지회장, 2009~2012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분부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현재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대의원으로 2015~2017년 기아차지부 조직실장으로 활동했다. 노조 7기 선전실장·정책기획실장, 2014~2015년 현대자동차지부 정책기획실장으로 일한 엄교수 사무처장 후보는 현재 노조 부위원장이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맡고 있다.

기호 2번 전규석(현대차지부 1공장)-신태섭(기아차지부 화성지회)-성세경(대전충북지부 개별) 후보 조는 ‘혼란의 시대, 현장에서 미래!’이라는 중심구호를 내세웠다.

금속노조 8기 위원장을 지낸 기호 2번 전규석 위원장 후보는 2005년 금속산업연맹 울산지역본부장, 2018년 현대자동차지부 1공장 사업부 대표 등을 역임했다.

신태섭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2002년 기아차노조 화성지부 고용국장으로 일했고, 금속노조·기아차지부 대의원과 노조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대전충북지부 조직부장인 성세경 사무처장 후보는 2002년부터 대전충북지부에서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으로 일해 왔다.

다섯 명을 선출하는 일반명부 부위원장 선거에 모두 여덟 명이 출마했다.

기호 1번 홍지욱 현 경남지부장(경남지부 개별), 기호 2번 박경선 현 서울지부장(서울지부 개별), 기호 3번 함재규 노조 9기 부위원장(기아차지부 소하지회), 기호 4번 손덕현 현대차지부 전 부지부장(현대차지부 2공장), 기호 5번 박찬일 7·10기 노조 대의원(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기호 6번 차덕현 현 전북지부장(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 기호 7번 강두순 노조 8-9기 부위원장(한국지엠지부 부평), 기호 8번 최순영 현 노조 감사위원(한국지엠지부 부평)이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로 나섰다.

현재 노조 부위원장인 김동성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과 권수정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각각 비정규직, 여성 할당 부위원장으로 입후보했다. 단독 등록으로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정책토론회,

11월 29일~12월 1일 1차 투표

부위원장 일반명부 8명,

비정규직·여성 할당 단독 입후보

각 후보자는 이날 후보등록 마감 시간부터 11월 28일까지 3주에 걸쳐 선거운동을 벌인다.

노조 중앙선관위는 두 차례에 걸쳐 정책자료집을 배포한다. 중선관위는 11월 15일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두 개 후보 조를 불러 공개 정책토론회를 연다.

노조 임원선거는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 1차 투표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행한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 조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를 놓고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다.

일반명부 부위원장은 1차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득표 당선자가 다섯 명에 미달하면, 2차 투표 시 다득표자 순으로 미선출 정원수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 12기 임원 임기는 2022년 1월 1일 시작해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부평공장 케노피 농성 돌입

글로벌지엠 수석부사장 9일 부평공장 방문 ... “비정규직·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케노피에 올라 농성에 돌입했다. 스티븐 키퍼 글로벌 지엠 수석부사장의 방문에 맞춰 노동자의 요구를 알리고자 농성에 나섰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부평·창원)지회는 11월 8일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지회는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의 복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2020년 1월 창원, 부평공장 구분 없이 일자리가 생기면 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기로 약속했다. 2020년 1월 이후 부평공장에 27명이 복직했다.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복직 조건으로 ‘불법파견 소송 중인 조합원’을 내걸고 있지만, 창원공장에서 소송을 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한성파트너스라는 하청업체로 신규로 입사했

다. 지회는 “사측이 진환 조합원은 불법파견 소송을 하지 않아서 복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며 “2020년 1월 당시에 없던 기준을 갑자기 들이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진환 조합원은 2005년 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 투쟁이 시작되고, 같은 해 4월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릴 당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라며 “진환 조합원은 노조 가입을 이유로 업체가 재계약을 거부해 해고됐고, 16년째 장기해고자다”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회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법원이 한국지엠에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고, 니라일리 사장 벌금형에 이어 카허카셈 사장도 불법파견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지엠은 불법파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그만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회는 농성에 앞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지엠 수석부사장 방문 관련 산업은행 비정규직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한국지엠 현장에 수석부사장이 정부와 산업은행을 방문해 전 기차 또는 신차 배정 외에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청탁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라며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2대 주주로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144명이다. 1, 2, 3차 하청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천여 명이 존재한다.

2018년 베리앵글 총괄부사장이 한국에 왔을 때 군산공장 폐쇄, 한국지엠 철수 협박, 8,100억 원 혈세 지원 등이 이어졌다. 지엠 고위 임원의 한국 방문 때마다 철수를 앞세워 노동자와 정부를 협박한다.

“점심값 지급하라” 파업에 사업주 폐업 협박

주얼리분회 J.SL 파업 ... 사측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노동부 조사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11월 9일 안양노동지청 앞에서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 사업장인 주얼리에스엘(J.SL)의 위장폐업을 규탄하는 집중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주얼리에스엘 작업장에서 파업 투쟁을 이어갔다.

주얼리에스엘은 안양시 소재 귀금속 제조업체로 주얼리분회 조합원들이 일하는 사업장이다. 주얼리에스엘 조합원들은 지난 9월 ‘밥값’ 지급을 요구하며 사업장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투쟁은 어느덧 119일째를 맞았다.

2020년 3월 사측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기존에 지급하던 식대를 임금에 포함해 없애버리면서 임금삭감·무급휴직을 강요했다. 사측은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챙기면서 휴직자에게 재택근무를 시키는 등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 주얼리에스엘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주얼리에스엘은 파업이 한 달을 넘어가자 교섭 자리에서 “적자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겠다”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주얼리에스엘 노동자들은 노조 와해를 위한 사측의 위장폐업 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안양 제조공장 외에 대구 본사나 사무직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김도현 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집중집회에서 “주얼리에스엘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아먹더니 폐업 카드까지 꺼냈다”라며 “명백히 위장폐업이다. 금속노조는 위장폐업을 용납할 수 없다. 노동부 안양지청이 빠르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정봉 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장은 “주얼리에스엘은 노동자들이 1년 넘게 임금 삭감당하다가 고용이라도 보장하라고 요구하자 폐업으로 협박한다”라며 분노했다.

김정봉 분회장은 “노동자들은 단지 점심밥을 달라는 요구를 할 뿐이다”라면서 “사측은 2억 원 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불법으로 받고, 노동자들에게 5천만 원만 주고 1억 5천만 원을 털어갔다”라고 일갈했다.

노동부 안양지청 앞에서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인근에 있는 주얼

리에스엘 안양공장으로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진행했다.

주얼리에스엘 사장은 노동자 행진대오가 도착하기 전에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마무리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공장 2층 생산 현장에서 파업·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폐업철회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지속하면서 11월 11일 오후 다시 한번 집중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